

## 임프란트 상부구조의 적합성 검사 방법에 대한 비교

임희숙, 박주미, 안승근, 송광엽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임프란트지지 보철물의 제작 동안에 금속구조물의 시적은 가장 중요한 술식중의 하나이다.

골조직에 견고히 고정된 골유착성 고정체에 부정확한 상부구조를 연결하면 상부구조와 임프란트의 구성요소 및 임프란트 주위의 골조직에 응력이 형성되어 단기간에는 동통 및 불편감이 야기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프란트와 보철적 구성요소가 느슨해지거나 파절되어 임프란트 고정체의 골유착이 상실되거나 상부구조의 기계적인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하여 초기의 임프란트에 관한 수많은 저서에서는 모든 임프란트지지 보철물의 상부구조에서 수동적인 적합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일반적으로 보철물의 절대적인 적합성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 주조와 보철적 기술면에서 다양한 기술적 선택 사항들이 소개되면서 잠재적인 적합성은 개선되었지만, 최종 보철물의 수동적 적합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비과학적이며 마이크로 수준에서 완벽하게 수동적인 적합성을 보이는 주조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 구조물의 검사는 더욱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프란트에 대한 금속구조물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방법은 임상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 외에 상부구조의 적합성 평가를 고려시에 보철물의 관계를 판별하는 술자의 능력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부구조의 변형과 부정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제거한 시편을 제작하고 인위적으로 적합성의 불일치를 형성하여 임프란트지지 보철물로 수복한 경험이 적은 16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방법들간에 유의할만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와 얼마의 불일치에서부터 적합성을 수용하는 것보다 수용하지 않는 쪽이 더 많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